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제3115호 www.metroseoul.co.kr

오늘부터 호주산 쇠고기 수입가격 싸진다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2일 발효돼 국내에 들여오는 호주산 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가 인하되는 가운데 1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호주산 쇠고기 판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트렌드 방송가 휩쓸다

샐러리맨 애환 담은 드라마·예능프로 진한 감동
'미생' 신드롬에 직종·시공 초월한 후속작 이어질듯

“'미생'을 보면 화면이 회색빛입니다. 웃음 코드도 없고 안타까워할 일도 없죠.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엔딩 크레딧과 함께 OST가 흘러나오면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만난 직장인 이모 씨(30)는 '미생'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실제 국내 굴지의 상사에서 6년간 재직하다 얼마전 퇴직했다.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을 돕고 있다.

◆'직장인' 코드, 드라마·예능 경계 없이 점령

지금 방송가는 직장인 열풍이다. 샐러리맨의 삶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tvN 드라마 '미생'은 종영을 한 주 남긴 상황에서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그동안 부하직원과 상사의 갈등, 비정규 계약직의 애환, 직장 내 성차별,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을 사실적으로 풀어내며 직장인의 공감을 이끌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송분은 평균 시청률 7.4%,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했다. 이는 '미생' 자체최고 시청률이자 케이블·위성·IPTV 통합 1위의 성적이다.

'미생'의 인기로 직장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도 재조명 받고 있다. KBS2 '개그콘서트' 속 코너인 '렛잇비'는 지난 6월부터 직장인의 애환을 노래하며 코너 시청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오늘부터 출근'도 지난 9월부터 밀착형 직장 관찰 프로그램으로 시동을 걸어 시즌3까지 순항 중이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좋다-런닝맨'은 '샐러리맨 슈퍼레이스' 편을 방송했다. '출근하기 미션' 등으로 직장인의 고된 출근길을 담아 공감을 얻었다.

◆직종과 시공간 초월…공감·위로는 계속된다

방송가의 직장인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직종의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한 공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포맷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온스타일의 '슈퍼컴퍼니'는 차세대 디자이너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기존과 달리 탈락 제도를 없애며 '오피스 리얼리티'를 강조했다. 이우철 PD는 “디자이너 친구들이 진짜 회사에 들어가서 겪는 리얼리티를 만들고 싶었다”며 “신입사원으로서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12일 첫 방송을 앞둔 JTBC의 사극 '하녀들'은 조선 시대 노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노비의 이야기이자 직장인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조현탁 PD는 “노비의 삶은 실제로 샐러리맨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해진 신분, 정해진 일과에 쳇바퀴 도는 삶, 그 사이에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콘텐츠가 사랑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직장인의 삶이 방송을 통해 조명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우리 주변의 친근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미생'의 이재문 PD는 “자극적인 소재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직장생활을 다룬 점이 주효했다”고 성공 요인을 밝히며 한가지 사례를 전했다.

“한 시청자는 새벽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답니다. '미생' 재방송을 보며 울고 있던 아내는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며 미안해 하더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라마 하나에 이해하더라'라고 말입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대한항공 압수 수색… 조현아 오늘 출두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부사장은 물론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검찰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11일 조만간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며, 당초 대한항공 측에서 '이날 출두는 어렵다고 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찰도 이날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0일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이 주의 개봉작

파티51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정용택
출연: 하헌진, 회기동 단편선, 밤섬해적단

한국 대중음악을 이끄는 뮤지션들이 태동한 인디음악의 메카 홍대.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공연할 곳을 찾지 못한 언저리 뮤지션들이 있다. 홍대 앞 '작은 용산'으로 불리는 두리반을 시작으로 이들은 자본·경쟁·분열에 맞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한다.

슈퍼처방전
장르: 코미디
감독: 대니 분
출연: 대니 분, 카드 므라드

로망은 훈훈한 외모에 능력과 유머까지 겸비한 남자지만 예민한 성격 때문에 외롭기만 하다. 친구이자 의사 디미트리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진짜 아픈 환자들이 가득한 의료캠프에 그를 데려간다. 그곳에서 로망은 환자와 신분증이 바뀌어 전쟁영웅으로 오해받게 된다.

버진 스노우
장르: 스릴러
감독: 그렉 아라키
출연: 쉐일린 우들리, 에바 그린

열일곱 살의 어느 날 엄마가 사라졌다. 아름답고 열정적이며 청소와 요리까지 완벽했던 엄마. 엄마는 아빠를 미워했고, '캣'이라 부르며 새끼고양이처럼 아끼던 내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탐탁지 않아했다. 엄마는 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파커
장르: 범죄·스릴러
감독: 테일러 핵포드
출연: 제이슨 스타뎀, 제니퍼 로페즈

프로범죄자 파커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강도단과 함께 놀이공원 털이를 완벽하게 마친다. 이어 보석경매장을 터는 건을 제안 받은 그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로 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협 받는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파커는 복수의 계획을 세운다.

파스텔과 무채색으로 담은 사랑의 변화

비주얼 스타일리스트 미셸 공드리 감독의 로맨스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무드 인디고

미셸 공드리 감독이 '이터널 선샤인'을 발표한지 어느 덧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터널 선샤인'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또 다른 대표작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이를 독특한 영상으로 구현하는 능력만큼은 미셸 공드리 감독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스타일이 제대로 된 이야기와 만난다면 또 다른 '이터널 선샤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아직까지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가 궁금한 이유다.

'무드 인디고'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7번째 장편영화다. 프랑스 소설가 보리스 비앙이 1947년에 출간한 '세월의 거품'을 스크린에 옮겼다. 칵테일을 만드는 피아노를 만들어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번 엉뚱한 발명가 콜랭(로망 뒤리스)이 사랑스러운 여인 클로에(오드리 토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그리고 결혼 이후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은 '세월의 거품'에 대해 "영상 작업에 있어 많은 영감과 영향을 준 소설"이라고 밝혔다. 그 말처럼 영화는 감독 특유의 상상력과 스타일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말하는 생쥐, 바퀴벌레처럼 기어 다니는 초인종, 구불구불한 곡면으로 이뤄진 식탁, 그리고 거품 모양의 놀이기구까지 미셸 공드리 감독다운 소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눈을 즐겁게 한다. 그만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관객에게는 비현실적이면서도 아날로그의 감성을 지닌 소품들과 장면들이 무척 반갑게 다가올 것이다.

색의 변화도 '무드 인디고'의 특징 중 하나다. 한없이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차가운 아픔으로 끝나게 되는 사랑의 감정을 영화는 색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비비드와 파스텔 톤에서 시작해 모노 톤을 지나 무채색으로 이어지면서 사랑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그려낸다. 사랑의 행복과 아픔을 한번쯤 겪어본 이라면 영화가 그려내는 감정의 변화에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드 인디고'가 '이터널 선샤인'에 버금가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대표작이 될지는 의문이다. 촘촘한 이야기로 사랑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었던 '이터널 선샤인'에 비해 '무드 인디고'는 사랑의 시작과 끝을 도식적으로 풀어낸 로맨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셸 공드리 감독은 '무드 인디고'로 자신이 변함없는 비주얼 스타일리스트임을 증명해 보인다. 동시에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은 부족함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와 스타일, 둘 중 무엇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무드 인디고'에 대한 평가는 나뉠 것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로맨스에 녹아든 연말 극장가

할리우드 신예 ★들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러브, 로지'

HOT SCREEN

연말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맨스 영화다. 12월 둘째 주에는 연인들을 위한 두 편의 로맨스 영화가 극장가를 찾는다. 할리우드의 신예 배우들의 풋풋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지난 10일 개봉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사진 왼쪽)은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러브 액츄얼리' '레미제라블' '어바웃 타임' 등의 제작사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영국 워킹타이틀의 작품이다.

'레미제라블'에서 마리우스로 열연한 배우 에디 레드메인,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로 얼굴을 알린 펠리시티 존스가 주연을 맡았다. 에디 레드메인은 이 영화로 뉴욕온라인비평가협회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영화는 스티븐 호킹과 그에게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선사한 여인 제인 와일드의 이야기를 담았다. 두 사람의 운명과도 같은 사랑,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절망의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가 연말 극장가를 따뜻하게 만들 전망이다.

같은 날 개봉한 '러브, 로지'(오른쪽)는 12년 동안 단짝친구로 지내온 로지와 알렉스의 엇갈리는 우정과 사랑을 담은 작품이다. '백설공주' '섀도우 헌터스: 뼈의 도시'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신예 릴리 콜린스, 그리고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로 이름을 알린 샘 클라플린이 로지와 알렉스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영화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 있는 두 남녀의 미묘한 줄다리기를 사랑스러우면서도 담백하게 그렸다.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아일랜드에서 주요 로케이션을 진행해 영상미를 더했다. 여기에 비욘세, 엘튼 존, 릴리 알렌 등 팝스타들의 OST가 영화의 감성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장병호기자

세대 초월 '감성 음악' 연말 장식

'포크' 양희은·'소울' 박효신…뮤지션으로 돌아온 윤상·윤종신

Top Stage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감성 음악이 이번주 주말 관객과 함께 한다.

가수 양희은은 11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 백양콘서트홀에서 2014 양희은 콘서트 '다시,시작'을 연다. 지난달 19일 발매된 8년만의 정규앨범 '2014 양희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양희은은 1971년 '아침이슬'로 데뷔한 뒤 '한계령' '하얀 목련' 등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포크계의 대모가 됐다. 지난해 아이유·윤종신·이적 등 젊은 아티스트와 협업했다. 올해 '나영이네 냉장고'를 발표하며 재즈에도 도전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는 3인조 걸그룹 바버렛츠,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의 원작자 강승원, '사랑했지만'의 원작자 한동준, 양희은의 동생이자 배우 양희경이 게스트로 함께 한다. 양희은은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뻔하고 묵은 노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연말 공연에서 다양한 곡을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수 박효신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15주년 라이브 투어 '해피투게더'를 시작한다. 투어의 포문을 여는 이번 서울 공연은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효신의 신곡 '해피투게더'는 지난달 24일 공개 직후 국내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라이브 투어에서는 히트곡들과 '해피투게더', 올해 초 발매돼 현재까지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야생화'를 라이브 최초로 공개한다.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효신은 공연 콘셉트, 무대 연출, 의상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관객을 위한 LED 팔찌도 준비돼 있어 아티스트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더 가까워진 실력파 뮤지션 윤상과 윤종신도 연말 콘서트를 준비했다.

윤상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단독콘서트 '겨울 밤의 풍경'을 연다. 11일 새 앨범 '더 듀엣 파트1'을 공개한 그는 바로 다음날 공연을 통해 앨범 수록곡의 라이브 무대를 처음 선보인다.

윤종신은 연말 시상식 콘셉트로 관객과 만난다. 12일 오후 8시와 13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4 종신예술대상'를 연다. 공연은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월간 윤종신'의 제작자로서 활동 중인 윤종신의 모든 음악으로 구성된다. 엠넷 '슈퍼스타K6' 곽진언·김필이 13일 공연의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고흐의 일생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 새 단장…내년 2월까지

세기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展)'이 12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전시로 돌아온다.

지난 10월18일부터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시작한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은 12월부터 전시장 내 타이포와 인기작 중심의 그림 교체, 그리고 체험존 강화 등 세부 콘텐츠를 새롭게 갖춰 관객과 만난다.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은 기존과는 다른 형식의 전시로 고흐의 작품 총 350여점을 선보인다. 기존 작가들의 전시회는 공간 제약상 50~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평균적인 전시 분량이라면 '반 고흐: 10년의 전시전'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 총 350여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이 전시는 총 5개의 '존(zone)'으로 반 고흐의 일생을 나눠 그의 죽기 전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과 그의 스토리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색채, 거친 붓터치, 사물의 뚜렷한 윤곽과 형태를 통해 현대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흐의 화풍과 첨단 기술력이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장 곳곳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지정해 놓고 있어 유명 작품과 함께 미디어아트를 사진 한 컷에 담을 수 있다. 주말 가족단위 관객들을 위한 체험존도 마련했다.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은 내년 2월8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

명화 숨은그림찾기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제가 심심할 때 종종 하는 활동인데요. 바로 '명화 숨은그림찾기'놀이입니다. 다소 알아보기가 어려운 작품을 놓고 하거나, 추상 미술작품을 가지고 하면 재미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기에도 미술 감상 놀이로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호리병·테이블·접시·의자·과일·햇바닥·왕 블루베리·음표를 찾아보세요!

얼마 전 아이들이 미술 감상 시간에 찾아낸 물건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것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가 입체주의적 작품을 그리던 시기에 표현한 작품인데요. 한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그리다보니 겹쳐지고 뭉쳐져서 울퉁불퉁한 물건들처럼 보입니다.

쉽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조금 어려운 듯 숨겨져 있어야 찾는 재미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쉽게 찾아지지 않고, 조금은 어려운 과정 속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취업의 문턱, 짝사랑 하는 상대의 호응, 높은 시험 성적, 꼭 성사시켜야하는 일들 등등…. 가지고 싶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하루라면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명화 숨은그림찾기'를 하며 머리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1주년 '1박2일 시즌3' 부활의 비결은?

시즌마다 다른 멤버로 채워 새로운 웃음 제공 전략
시즌3 높은 시청률은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움

지난해 12월1일 시작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이하 '1박2일')가 방송 1주년을 맞이했다.

2007년 첫 선을 보인 '1박2일'은 최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나영석 PD가 친정 KBS를 떠나고 불미스러운 일로 원년 멤버들이 하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시즌2에서 멤버를 교체하며 새 단장을 했지만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폐지설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1박2일'은 멈추지 않았다. 원년 멤버 김종민과 시즌2의 차태현을 유지하고 배우 김주혁, 개그맨 김준호, 가수 데프콘과 정준영을 새로 영입한 시즌3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방송된 1주년 특집 '돌잡이 레이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시청률 16.9%(닐슨코리아)를 나타내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박2일'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즌이 이전 시즌과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여행'과 '복불복 게임'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폐지론까지 나왔던 '1박2일'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호진 PD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운이 따른 것 같다"며 "멤버들의 호흡이 정말 좋다. 서로 과도한 경쟁 없이 즐기면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던 (멤버) 조합이 인기 비결이라 생각한다"고 멤버 간의 궁합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았다.

유호진 PD가 말한 멤버들의 찰떡궁합에서 비롯된 '웃음 유발 상황'은 기자회견장에서도 발견됐다.

차태현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앞에 놓인 물잔이 사실 소금물로 채워져 있었던 것. 그는 옆자리 김준호가 눈치 채지 못하게 물잔을 건넸고 김준호는 그대로 소금물을 들이켰다. 녹화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복불복 게임'이 이어진 셈이었다.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고 김준호는 "늘 이런식"이라며 애교섞인 불만을 토로했다.

초반 시행착오에 대해서 유호진 PD는 "내가 할 줄 알았던 건 시즌1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것 뿐"이라며 "하지만 녹화를 거듭하니 선배들이 7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어 오면서 원래 틀에서 벗어나려 한 이유를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진 구성이 달라지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톤이 달라지는 게 리얼 버라이어티"라며 "새로운 여행지와 프로그램 패턴·장치 등을 고민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차태현은 "시즌2를 시작할 때 최소한 3년은 하자는 생각으로 들어왔다"며 "시즌2와 시즌3의 멤버를 비교하면서 '망했다' 또는 '좋아졌다'라고 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3년을 버텨보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꾸준함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데프콘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자에게 대본을 미리 주는 경우도 있는데 '1박2일'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다"며 "그래서 '1박2일' 촬영 전날에는 잠이 안 온다. 이 인간들이 뭘 시킬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예능 대세' 데프콘, '1박2일' 합류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4차원' 정준영, 개그맨으로서 웃음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은 김준호, 끈기의 차태현, 모두가 다 여전히 어색하다는 김종민.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이끄는 맏형 김주혁이 만들어가는 '1박2일'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인기 프로그램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김아중·조재현이 말하는 '펀치' 포인트는?

알고보는 TV

'추적자' '황금의 제국' 박경수 작가 신작
"무거운 내용 빠른 전개로 가려줄 겁니다"

SBS 새 월화극 '펀치' 조재현·김아중·김래원(왼쪽부터). /SBS 제공

배우 김아중·조재현이 SBS 새 월화드라마 '펀치'의 관전포인트를 설명했다.

11일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펀치' 제작발표회에서 김아중은 "시놉시스와 대본 1부를 읽고 등장 인물간 구도가 흥미롭다는 걸 느꼈다"며 "박정환(김래원)과 이태준(조재현)의 관계는 남녀 멜로 이상의 감정이고 이혼 부부인 박정환·신하경(김아중)은 싸울수록 강렬한 사랑을 느낀다. 역설적인 감정에 감동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김아중은 '펀치'에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신하경 역을 맡았다. 정의로운 검사로서 불의와 타협해 성공한 전 남편 박정환을 교화시키려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뻔한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달랐으면 좋겠다"며 "엄마이자 전문직이며 이혼한 여성이다. 이 심경들을 헤아려야 해 쉽지 않다. 감독이 현장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시청률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펀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박정환 검사의 생애 마지막 6개월을 기록하는 드라마다. '추적자' '황금의 제국'을 집필한 박경수 작가의 신작이다.

박경수 작가는 앞선 두 작품에서 돈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시대의 민낯을 드러내는 묵직한 필력으로 안방 시청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펀치'에선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질 지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드라마가 무겁고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조재현은 "오늘 보여진 영상이 1~2회를 정리한 건데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무겁지 배우들의 연기가 짓눌려 있지는 않다. 긴박한 전개가 무겁고 어려운 걸 가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현은 공안검사로 시작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는 이태준 역을 연기한다. 자신을 그 자리에까지 올린 박정환(김래원)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그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다"며 "박정환과의 우정이 살아 있다. 둘이 헤어지게 된 계기도 친형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태준의 냉정함에 끌렸다"고 역할을 소개했다.

김래원·김아중·조재현이 출연하는 '펀치'는 오는 15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우정이 만든 하모니

합동콘서트 'THE 끌림' 개최하는 플라이투더스카이·거미

비슷한 장르와 노래하는 만큼 잘 맞아 이제야 한 무대 서는 것 늦었다 생각해

R&B 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환희·브라이언)와 감성 디바 거미가 만났다. 14년이라는 오랜 우정을 자랑하는 세 사람은 오는 23~25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합동콘서트 'THE 끌림'을 개최한다. 친구로서 사적인 자리가 아닌 가수로서 공연을 앞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개했다.

◆ '더 끌림' 미리 엿보기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는 '더 끌림' 연습 장면을 무대 위에 올렸다. 세 사람은 기타·드럼·키보드 등 세션, 네 명의 혼성 코러스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모두들 마치 실제 공연 연습을 하러 온 듯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는 마치 그들 앞에 취재진이 없는 것처럼 별다른 인사 없이 첫 번째 곡 '사랑해요 우리'를 불렀다. 세 사람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무대였다. 화음을 맞춘 뒤에서야 브라이언은 "박수를 쳐도 된다"며 입을 뗐다. 환희는 자연스럽게 "다음 곡은 누가 먼저 할까? 지연이가 먼저 하자"며 거미의 본명(박지연)을 친근하게 불렀다.

거미의 열창이 이어지자 환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며 장난을 쳤고 세션에게 "저희 노래도 하겠다"며 노래를 시작했다. '너를 너를 너를' 도입부를 시작한 브라이언은 옆자리 거미에게 다가가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시종일관 티격태격 장난을 주고받는 세 사람의 우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장난 속에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무대가 이어졌다.

◆ 어떻게 '끌리게' 됐을까

오랜 우정을 쌓아온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가 추구하는 노래 장르와 음악 스타일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나 공식적인 무대에 같이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팀이 한 무대에 서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14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제야 함께한다는 게 늦은 감이 있다. 예전에 KBS2 '불후의 명곡'에서 브라이언과 거미가 듀엣을 한 적이 있는데 방청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이후 팬이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가 같이 공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거미에게 한 번 같이 해보자고 했다. 팬도 원했고 우리도 원했다." (환희)

"오랜만에 같은 시기에 활동하게 돼서 정말 반가웠다. 같이 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환희가 제안해서 자연스럽게 성사됐다. 다른 남자가수들과도 공연을 많이 해봤는데 이 두 친구는 서로 다른 매력이 있어서 좋다. 인간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많은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다. 두 남자와 여자인 제가 함께 노래하면 여러 가지 내용의 곡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거미)

"플라이투더스카이는 여자 팬이 많은 편이라 여자 가수랑 같이 무대에서 서면 질투를 한다. 근데 신기하게도 거미랑 한다고 하니 다들 좋아하더라(웃음)." (브라이언)

◆ 슬픈 사랑·이별 노래하는 R&B 발라드?

두 팀의 공통점은 특히 이별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것이다. 연인들의 날로 불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에서 이별을 노래하면 관객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터.

"두 팀이 함께한다고 하니 이별 노래나 슬픈 R&B 발라드 위주의 곡을 예상하더라. 물론 그런 노래가 주를 이루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랑과 이별, 끌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좋은 곡들을 무작정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거미)

"거미의 말대로 '더 끌림'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콘서트다." (환희)

플라이투더스카이는 1999년, 거미는 2003년에 데뷔했다. 오랜 활동 기간만큼 히트곡 또한 많다. 비슷한 색깔의 음악을 하는 만큼 서로의 히트곡 중 탐나는 노래가 있느냐는 질문에 환희는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거미는 '씨 오브 러브'를 꼽았다.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는 나와 브라이언 둘 다 좋아한다. 또 이번 공연에서 거미의 '기억상실'을 셋이 같이 부르게 됐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다. 남자 가수가 해도 좋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라 욕심이 났다." (환희)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노래 대부분을 좋아한다. 약간 빠른 템포의 곡을 좋아하는 편이라 '씨 오브 러브'를 가장 좋아한다." (거미)

세 사람은 최근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디자인/김아람

이상화·심석희, 주말 금빛 레이스 예고

빙속월드컵, 이상화 네덜란드 4차전·심석희 중국 3차전

주말의 핫스팟

이상화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와 쇼트트랙의 심석희(17·세화여고)가 나란히 12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해 금빛 질주에 나선다.

이상화는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치러지는 2014-2015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상화는 올 시즌 치른 세 번의 월드컵에서 500m 레이스에 6차례 출전해 5차례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통산 월드컵 500m 경기에서는 무려 27번을 연속해서 시상대에 올랐다.

서울 2차 대회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3차 대회에서는 전체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37초대 기록을 작성하는 등 경쟁자와 차원이 다른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번 대회가 열릴 헤이렌베인의 티알프 빙상장에서 이 종목 최고기록은 예니 볼프(독일)가 2008년 작성한 37초60이다. 일본 오비히로 메이지 홋카이도-도카치 오벌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 이미 볼프의 종전 트랙 기록을 갈아치운 이상화가 다시 한 번 새 기록을 쓸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심석희도 같은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2014-2015 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에 출전한다. 심석희는 지난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차 대회까지 2012-2013시즌 시작한 월드컵 금메달 행진을 12대회째 이어갔다.

심석희

심석희는 2012-2013시즌 6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3-2014시즌에서도 4번의 월드컵 대회에 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금메달을 따냈다. 올 시즌에도 1차 대회에서 통산 4번째 3관왕에 등극하고 2차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벌써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 쇼트트랙의 명실상부 최강자로 우뚝 섰다.

중국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텃세가 예상되지만 이를 뚫고 금메달 획득에 성공한다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4차 월드컵으로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다.

이번 주말에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한 시즌의 그랑프리 시리즈를 마감하는 파이널 대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한국은 시니어에서는 파이널 진출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주니어에서는 처음으로 남자 싱글 부문에서 파이널 무대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올해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쥔 이준형(18·수리고)이 주인공이다. 이준형은 이번 대회에서 프리스케이팅에 트리플 악셀 점프를 추가해 210점대에 진입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챔피언스리그 16강 확정…맨시티 '막차'

독일 4팀으로 가장 많아…1차전 내년 2월 킥오프

주말의 스포츠월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른 팀이 모두 정해졌다. 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잉글랜드)가 막차를 탔다.

맨시티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경기장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최종 6차전에서 AS로마(이탈리아)를 2-0으로 꺾었다. 맨시티는 승점 8을 기록, 바이에른 뮌헨(승점 15·독일)에 이어 E조 2위를 차지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죽음의 조'라는 평이었던 E조는 일찌감치 뮌헨이 선두자리를 꿰찬 가운데 2위 자리를 확보하려는 팀 간의 싸움이 치열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맨시티·AS로마·CSKA모스크바(러시아)가 모두 승점 5점으로 동률을 이뤘다.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2위 자리가 결판나는 상황이었다.

맨시티는 세리히오 아구에로가 부상 당하고 야야 투레가 출전 정지 상태라 제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사미르 나스리가 1골, 1도움을 올리며 맨시티의 해결사로 나

섰다.

이날 G조에서는 샬케04(독일)가 NK마리보르(슬로베니아)를 1-0으로 물리치고 역시 16강 진출권을 얻었다. 샬케는 승점 8을 쌓으며 승점 7을 기록한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조 선두 첼시(승점 14·잉글랜드)에 1-3으로 무릎 꿇으며 16강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다. H조에서 최하위로 마친 BATE(벨라루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두 팀의 대결에서 BATE는 아틀레틱 빌바오(스페인)에 0-2로 졌다. BATE는 대회 조별리그에서 무려 24골을 내줬다. 이는 대회 조별리그 사상 최다 실점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로써 조별리그 일정을 모두 마친 결과 독일 클럽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뮌헨·레버쿠젠·샬케 등 4팀이 16강에 진출했다. 스페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레알 마드리드·FC바르셀로나)과 잉글랜드(첼시·아스널·맨시티)가 각각 3팀으로 그 뒤를 이었고 프랑스에서도 AS모나코, 파리 생제르맹 등 2팀이 올랐다.

한편 6강 대진 추첨은 15일 스위스 니옹에서 열리고 1차전은 내년 2월 펼쳐진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11일

GS칼텍스	2	3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0	3	현대캐피탈

프로농구 전적 11일

인삼공사	19	24	21	16	**80**
삼성	24	20	17	17	**78**
LG	30	22	23	16	**91**
오리온스	29	16	20	15	**80**
우리은행	17	19	16	15	**67**
국민은행	11	24	14	14	**63**

"내년에도 올해 같은 성적 기대"

김효주, 2015시즌 KLPGA 투어 개막전 앞두고 회견

주말의 핫스팟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 다승왕, 최저타수상 등 4관왕에 오른 김효주(19·롯데)가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으로 새로운 시즌 개막전에 나선다.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은 12일부터 사흘 동안 세계 최대 골프클럽인 중국 선전 미션힐스 골프장(파72·6387야드)에서 열린다. 올해 열리는 대회지만 2015년 시즌 대회로 편입돼 기록된다. 올해 마지막 대회이자 새 시즌의 개막전이다.

김효주는 지난 9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해 내년 LPGA 출전권을 확보했다. 2015년이 더욱 기대된다. 특히 이 대회는 김효주가 지난 2012년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기록한 만큼 인연이 깊다.

지난 10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효주는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했던 경기라 나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경기"라며"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2015시즌에도 올해와 버금가는 성적이 나오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장하나(22·비씨카드)와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김혜윤(25·비씨카드)도 출전한다. 김혜윤은 "2010년부터 우승 2번, 준우승을 2번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대회"라며 "준우승도 아쉽게 2번을 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 우승 욕심이 많이 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밖에도 올 시즌 3승을 기록한 전인지(20·하이트진로)와 2승을 올린 이민영(22·한화), 올해 미국 LPGA 투어에서 1승씩을 올린 허미정(25)과 이미향(21·볼빅)도 출전한다. 중국의 기대주 린씨위(18)를 비롯한 중국 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총 출전 선수는 108명이며 우승 상금은 11만 달러다.

/장병호기자 solanin@

12일 개최되는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을 앞두고 지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효주(오른쪽)와 허미정.

/연합뉴스

韓-아세안, 재계 총수들 부산 집결

'CEO 서밋' 기업인 500명 참석… 박용만 회장 "협력이 세계경제 핵심 원동력"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협력은 곧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세계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하기 위한 '한-아세안 CEO 서밋'이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송치호 LG상사 대표이사, 네이버 김상헌 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350여명이, 아세안 측에서는 토니 페르난데즈 에어아시아그룹 회장, 황 꾸억 부응 베트남전력공사 회장, 부이 응옥 바오 페트로리멕스 회장, 수판 몽콜수트리 태국산업연합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ASEAN CEO 서밋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 성장엔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지 전세계가 고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이어 "아세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매년 5~7%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찾는 것은 아시아는 물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세계경제에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에어아시아 혁신 기업 선정

이번 CEO서밋에서는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와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그룹 회장이 아시아의 혁신기업인으로 소개됐다.

김 대표는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는 지역 고유의 환경에서 나오는 필요성이 기술과 결합해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닐 때 탄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CNN이 꼽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10가지' 중에 소개팅과 여성골퍼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IT기술과 결합해 소개팅 모바일 앱과 스크린 골프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혁신적인 IT서비스가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전략과 벤처기업 붐, 잘 정비된 인터넷 환경 등의 결합을 언급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는 2001년 보잉737기 두 대로 시작했지만 2013년 기준 항공기 150대를 보유한 '아시아 빅5'로 성장했다.

에어아시아가 12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파격적인 인사제도, 적극적인 마케팅, IT기술 활용, 소비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에 있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활주로 요원을 IT팀장으로, 전화상담실 직원을 조종사로 전환배치하는 등 통상적인 인사제도를 따르지 않고 직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객이 직접 부착할 수 있는 수하물 표를 개발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간편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등 IT기술을 활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의 월평균 방문객 수가 전세계 200여개국 6500만 명에 달하고 페이스북 팬도 560만 명에 이르는 것도 페르난데스 회장이 강조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물 중 하나다.

'성장이론의 대가'로 유명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현재 경제적 가치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은 도시다. 정부 정책도 산업화가 아니라 도시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로머 교수는 "도시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성공적인 도시화를 위해 효율적인 개발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도시화를 위해 인프라 설계와 보급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등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일자리 연계, 교육에 의료서비스까지

한국기업, 아세안 지역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여자가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좋은 시설의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에가와티)

국내 기업들이 아세안 현지에서 직업교육 등 현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지와 소통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IT, 교육, 의료, 주거환경 개선 등 현지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식은 학교, 주택, 인프라 건립 등 하드웨어 지원부터 IT교실 운영, 의료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와 연계된 배움 기회 제공

우리 기업들이 업의 특성을 살린 직업교육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현지 서비스 품질 강화'라는 윈윈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은 국가별·지역별 환경 차이에 따른 IT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삼성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삼성 테크 인스티튜트'를 설립해 기술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 조립 기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직업교육으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일부는 현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채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서비스 품질도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한국국제협력재단(이하 'KOICA')과 함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에서 직업교육학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를 운영 중이다.

약 15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생에게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비소 취업을 알선하고 우수 인력은 현지 현대차 정비센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보건 캠페인

동남아의 열악하고 시급한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도 많다.

SK는 1996년부터 19년째 베트남 등에서 '안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활동을 진행해 지금까지 3400여명의 어린이들이 밝은 얼굴을 찾았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구순구개열 등의 안면기형을 방치할 경우 언어장애, 식사섭취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조기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LG는 아세안에서 '쏘카피압 러어(캄보디아 어: 함께 건강해져요)' 캠페인을 펼치며 의료시설이 열악한 각 지방도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무료진료 및 보건 위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위생취약지역 7개 도시에서 주민 88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캠페인을 실시했고 올해는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 실시해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잠재적 고객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LG가 캄보디아에서 펼치고 있는 '국민건강 캠페인'. /전경련 제공

인도네시아 삼성테크 인스티튜트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 /전경련 제공

인도네시아 삼성테크 인스티튜트 관계자들이 실습 중인 여성들을 지켜보고 있다. /전경련 제공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학생들이 자동차 정비 실습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이유리

이종석

유병재

김성근

화제의 게임모델 베스트 5는 누구?

이유리·이종석·김성근·유병재·장수원

올해 화제를 모은 게임 홍보 모델은 누구였을까.

게임업계에서 게임 모델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게임 홍보에 득이 되지만, 못 쓰면 모델만 기억되고 게임은 잊혀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게임 기업들은 모델 선정에 신중을 거듭한다.

전통적으로 게임 모델은 아이돌 그룹이 강세다. 특히 출시 주기가 빠른 모바일 게임에서 가수를 홍보 모델로 기용하는 사례가 많다. 게임의 주 소비자가 유행에 민감한 10~20대에 몰린 탓이다. 하지만 게임 산업이 커지고 소비층이 넓어지면서 홍보 모델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올 한해 화제를 모은 게임 홍보 모델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연기자 게임 모델 전성시대

게임 모델로 아이돌이 대세지만 게임 공중파 광고 시대를 맞아 연기자들이 인기 모델 반열에 오르고 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게임 모델은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희대의 악역 '연민정'을 열연한 이유리(35)다. 이유리는 디즈니 캐릭터 퍼즐 게임 '라인 디즈니 썸썸'의 모델을 맡아 지난달 17일부터 공중파 광고에 등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아기자기한 디즈니 캐릭터 게임과 악역 연기자 모델의 이색 조합으로 화제를 모았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퍼즐 게임 '포코팡' 모델로 이종석(26)을 기용해 톡톡한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 지난해 10월 출시 때부터 올해 초까지 '포코팡' 모델로 활동한 이종석은 당시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종석 카카오톡 스티커 출시와 공중파 광고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덕분에 '포코팡'은 출시 5개월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국내 스마트폰 게임 히트작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장수원(34)은 쿤룬코리아의 액션 RPG '용감한 영웅들' 모델로 최근 선정됐다. 장수원은 드라마 데뷔작에서 어색한 연기로 혹평을 받았지만 '로봇연기'란 별명을 얻으며 의외의 전성기를 맞았다. 게임 홍보 영상에서도 그는 특유의 뻣뻣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웃음을 선사한다.

◆ 연예인 뺨치는 유명인사 모델

아이돌이나 연기자가 아닌 게임 모델들이 각광받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김성근(72) 한화 이글스 감독은 지난 10월부터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김 감독은 게임 내 캐릭터로도 등장한다. 모델 발탁 당시 김 감독은 고양 원더스를 떠나 한화 이글스로 부임한지 얼마 안된 터라 더욱 화제를 모았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명세를 탄 유병재(27) 방송 작가는 광고 업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케이블 채널 tvN의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의 방송 작가이자 출연진으로 활동하는 유씨는 넥슨의 액션 RPG '마비노기 영웅전' 모델로 발탁됐다.

넥슨 홍보실의 임경호 '마비노기 영웅전' 담당자는 방송 작가를 게임 모델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유명 연예인보다는 게임을 즐기며 느끼는 감정을 실제 이용자처럼 표현해줄 수 있는 모델을 찾으려 했다. 유병재 작가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연기력을 선보여 섭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서머너즈 워·낚시의 신·다크어벤저2

국내 모바일 3각 편대 글로벌 진격

국내 모바일게임의 글로벌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컴투스는 명품 RPG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42개국 구글 플레이에서 '2014년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머너즈 워'는 대만·홍콩의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2014년을 빛낸 최고작' 베스트 게임에 뽑혔다.

컴투스의 '낚시의 신'도 미국·홍콩·싱가폴·말레이시아 등 41개국 구글 플레이에서 '2014년 최고의 게임', 대만·홍콩 애플 앱스토어에서 '2014년을 빛낸 최고작' 중 우수작에 뽑혔다.

게임빌도 '다크어벤저2'로 힘을 내고 있다. 호쾌한 타격감과 실감나는 그래픽이 압권인 '다크어벤저2'는 미국 등 구글플레이에서 '2014년 최고의 게임'에 뽑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시간은 흘러도
좋은 염모제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웰빙 염모제의 기준-세븐에이트

품질에 대한 한결 같은 믿음으로 선택한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취향에 따라 스타일에 맞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은 물론
생활 속 활력과 자신감까지 되찾아 드립니다

냄새없이 빠르고 간편한 제3세대 웰빙 염모제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냄새없는 무향료 : 무향료 제조기술로 좁은 실내에서 편안하게 염색하실 수 있습니다.
윤기있는 건강한 머릿결 : 유채꽃 추출 영양성분이 광택과 건강함을 더해줍니다.
자외선 차단제 함유 : 선블럭의 OMC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 줍니다.

4호(자연스런 밤색) **5호**(진한밤색) **6호**(자연스런 갈색) **7호**(자연스런 흑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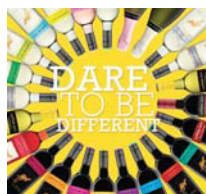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온라인 구매 : www.dseshop.co.kr

뉴스&뉴스

업계 최초 'CCM 인증'

●이마트가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이마트는 지난 8일 '2014 국가고객만족도(NCSI)' 대형마트 부문에서 1위와 '제16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유통업체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CCM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이번 주에만 세 번의 경사를 맞게 됐다.

호주산 '옐로우테일' 30% 할인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오는 31일까지 호주 대표 캐주얼 와인 '옐로우테일'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이 제품은 호주 와인 산업 역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둔 브랜드로 미국에서 프랑스·이탈리아를 누르고 수입 와인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할인 행사 제품은 옐로우테일 쉬라즈·까버네 소비뇽·샤도네·메를로·버블즈 로제 등 총 8종이다.

커피전문점 카자흐스탄 진출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왼쪽)가 지난 10일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아스타나 그룹(ASTANA GROUP)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내년 3월 1호점 오픈 이후 연내 5개, 2018년까지 15개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 도움 '발효 단백질'

●우리 몸의 근육들은 40세 이후부터 해마다 1%씩 줄어든다. 40대 이후 체중이 감소한다면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것이다.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려면 근육을 합성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해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영양소이자 매일 소모되는 만큼 보충도 해야 한다.

최근 푸른 친구들이 출시한 '내 몸의 발효콩력'은 효소발효공법으로 단백질을 저분자화해 흡수력을 극대화시켰다. 사람의 몸과 가장 흡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콩이 주원료다. 또 몸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으며 근육의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닭고기보다 15%, 소고기보다 20% 이상 포함돼 있다. 문의: 080)745-9230·www.ilove62.com /황재용기자 hsoul38@

겨울스포츠는 폴라베어와 함께…

코카콜라, 폴라베어 TV CF와 한정판 6종 선보여
12일까지 미니 스포츠 폴라베어 인형 2천 세트 증정

코카콜라사(www.coca-cola.kr)가 추운 겨울을 맞아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폴라베어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담아낸 '폴라베어 TV 광고'와 '폴라베어 스페셜 에디션' 6종을 선보이며 본격 겨울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폴라베어 광고는 지난해 '리들리 스콧' 감독에 의해 재탄생됐던 폴라베어 광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툰드라에서 '스노우 폴라베어'를 만들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북극곰들 앞에 올해의 주인공인 '폴라베어 스페셜 에디션'을 등장시켜 앞으로 출시될 패키지와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폴라베어와 함께 겨울을 신나게 즐기자'는 캠페인 콘셉트를 담아 새롭게 선보인 폴라베어 한정판 제품은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귀여운 북극곰이 새하얀 눈 위에서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폴라베어로 변신해 코카콜라가 추구하는 짜릿함과 즐거움을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폴라베어 스페셜 에디션은 다양한 제품 패키지 구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패키지를 골라 구입할 수 있는 재미도 선사한다. 250㎖ 캔과 500㎖ 페트 제품은 스케이트·스키·스노우보드를 즐기는 3종의 폴라베어 제품이다. 1.5ℓ 페트와 1.8ℓ 페트는 스케이트, 스노우보드 폴라베어 2종으로 출시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맞아 폴라베어 캐릭터로는 처음으로 '알루미늄 보틀'과 '코-크 볼' 제품도 선보였다. TV 광고 속 사랑스러운 폴라베어의 모습을 알루미늄 보틀(250㎖)과 둥근 공 모양의 패키지에 담아낸 폴라베어 코-크 볼(350㎖) 에디션은 연말연시 선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귀띔했다.

코카콜라 측은 이와 별도로 오는 12일까지 SNS 채널에서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귀여운 미니 스포츠 폴라베어 인형 세트를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 메인 페이지(http://cokepolarbear.r-c.co.kr/Home/Event2)에 접속해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선택한 후 댓글을 달고 공유하면 자동 응모된다. 참여자 중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미니 스포츠 폴라베어 인형 1세트씩, 총 2000세트가 선물로 증정한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1993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전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폴라베어'는 산타클로스와 함께 코카콜라의 대표하는 자산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함을 전달하는 마스코트의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다"며 "올 겨울 더욱 스포티해진 폴라베어와 함께 일상 속에서 짜릿한 행복을 경험해보는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야구 여신도 반한 키위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이 '야구여신'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 미술관 앞에서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건조한 겨울, 오이 요리로 수분 충전을…

요즘처럼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쌀쌀한 날씨에는 체내 수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오이는 겨울철 수분 흡수에 매우 요긴한 식품이다. 수분 함량 95%를 자랑하는 오이로 건강 반찬을 만들어보자.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도라지오이생채

분량: 4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70㎉ / 조리시간: 20분

[재료] 도라지 200g, 오이 1개

[양념] 고춧가루·식초 각 2큰술, 다진 파 다진 것 3큰술, 다진 마늘 1과½큰술, 깨소금·설탕 각 1큰술, 참기름·소금 각 약간

1. 오이는 어슷 썰어 소금에 5분 절인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다.
2. 도라지는 소금을 넣고 주물러 쓴맛을 우려내고 물기를 꼭 짠 후 고춧가루를 넣고 색깔이 나게 무친다.
3. 무친 도라지와 오이를 섞어 다진 파·마늘·설탕·소금·깨소금·식초로 양념해 같이 무친다.

◆오이갑장과

분량: 4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148㎉ / 조리시간: 30분

[재료] 오이 2개, 쇠고기 60g, 양송이 적당량

[양념] 홍고추·청고추 각 ½개, 소금·다진 파 다진 것·설탕 각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간장 3큰술, 깨소금·참기름·후춧가루 가루 각 약간

1. 쇠고기는 다져서 다진 파·다진 마늘·간장·참기름·깨소금·설탕으로 밑간을 한다.
2. 오이는 5㎝ 길이로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제거한다
3. 홍고추·청고추는 어슷 썰고, 양송이는 모양대로 준비한다.
4.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쇠고기를 볶다가 절여진 오이를 넣고 다시 간을 맞춘 후 볶는다.
5. ②번 채소를 ④에 넣어 보기 좋게 장식한 후 깨소금을 뿌린다.

◆오이나물

분량: 4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85㎉ / 조리시간: 15분

[재료] 오이 2개

[양념] 깨소금·다진 마늘 각 ½큰술, 소금 2작은술, 다진 파·참기름 각 1큰술, 실고추 약간

1. 오이는 얄팍하게 썰고 소금으로 절였다가 물에 헹구어 꼭 짠다.
2. 파와 마늘은 곱게 다지고 실고추는 3㎝ 길이로 짧게 끊어놓는다.
3. 팬을 달구어 참기름을 두르고 절인 오이를 넣어 볶아 낸다.
4. 기름이 돌면 다진 파·마늘·깨소금·실고추를 넣고 잠깐 볶아서 넓은 그릇에 펼쳐 식힌다.

'알록달록' 소품·캔들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홈파티 스타일링 팁

불황으로 연말 홈파티족이 늘어나면서 집안 꾸미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켜 놓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낄 수있는 캔들은 연말 분위기를 연출하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아로마 멀티숍 아로마코에스에서는 강렬한 빨간색 용기가 돋보이는 '아스펜베이 트라비아 자 캔들'이 단연 인기다. 화이트 장미와 우드향이 조화를 이룬 고급스러운 향으로, 초를 켰을 때 은은한 조명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칼리 트래블틴 로즈마리베르가못 필리쿠디'는 꽃·열매·향신료 등이 어우러진 아로마테라피 향의 캔들이다. 가벼운 틴 케이스로 휴대가 간편해 집뿐 아니라 연말 여행에도 가져가기 좋다.

욕실도 '하나의 방'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용품 역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욕실 토털 브랜드 대림바스가 독점 수입한 일본 브랜드 '바수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양치컵·수건걸이·비누대 등을 내놨다. 둥근 디자인에 비비드한 컬러가 눈길을 끈다. 모그(mog)가 선보인 초록빛의 물 비누통·양치컵·십자고리 등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한다.

대림바스 관계자는 "흡착식으로 제작된 욕실 소품은 좁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특정 시즌이 지난 뒤에도 활용이 가능해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홈파티를 위해 집안 곳곳을 꾸몄다면 남은 것은 이제 '테이블 세팅'이다. 최근 리빙 업체들이 출시 중인 '홀리데이 한정판' 테이블웨어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충분하다.

◆'한정판 식기' 파티 테이블 완성

타파웨어 브랜즈의 스페셜 에디션 '빨대 머그 세트'는 그린·오렌지·퍼플·옐로 등의 색상으로 화려한 파티 테이블에 잘 어울린다.

월드키친은 블루·레드의 강렬한 색상 대비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시골 풍경을 담은 '코렐 마이홈타운'을 추천했다. 코렐 마이홈타운은 월드키친에서 매회 개최하고 있는 코렐 패턴 디자인 공모전의 우승작으로 지난해 상용화된 제품이다.

월드키친 관계자는 "알록달록한 한정판 식기에 음식을 담아 즐기면 굳이 비싼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가구업계 "온라인 할인으로 비수기 돌파"

전용 브랜드 선보이고 가격 낮춰 판촉 경쟁

가구 업계가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할인 경쟁을 벌인다. 겨울철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할인을 내세우고 막판 물량 떨어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리바트는 운영 중인 현대리바트몰에 판매량 상위 50개 품목을 최대 60% 할인하는 'HOT 50' 제도를 도입했다. 온라인 인기 상품을 대량 생산해 원가를 절감하고 마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이 외에 4~6개 기획제품을 선정해 10~50개 수량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소셜 프라이스' 제도를 신설했다.

보루네오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보루네오하우스 베스트셀러 기획전'은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서랍장·침대·소파·주방 수납가구 등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선정했다. 하반기 신제품 '하임시리즈' '모닝듀' '아르메' '라보떼' '엘리브' 등이 할인 품목에 포함됐다.

'보루네오하우스'는 종합가구 특유의 무겁고 중후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론칭한 온라인 전용 브랜드다.

한편 까사미아는 온라인숍을 통해 소품과 소가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블링킷 전품목을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29일까지 연다.

/김수정기자 ksj0215@

크리스마스 한정판 액세서리 오스트리아 패션 쥬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Swarovski)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2014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발레리나(Ballerina)' 네크리스&이어링 세트와 '스톤(Stone)' 네크리스&이어링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뷰티업계 "쌓여있는 포인트 쓰세요"

제품 구입·교환 때 활용

뷰티업계가 쌓여있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선물을 교환할 수 있는 행사를 벌인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년 2월까지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뷰티포인트'를 팝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쇼퍼백·파우치 세트로 바꿀 수 있는 '키스 더 스타일' 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쇼퍼백·파우치 세트는 뷰티포인트 1만2000점과 교환하면 된다.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숍 미샤는 28일까지 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윈터 빅세일'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마일리지를 사용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편의성 높인 주방용품 잇따라 출시

인체공학 디자인 눈길

주방용품 업계가 실용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와 선택의 폭을 넓힌 제품으로 주부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디자인된 냄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방용품 브랜드 '마이셰프'는 퓨어 냄비 4종 세트(사진)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이 30도로 올라간 U자형 라인으로 디자인돼 냄비를 들고 이동하기 편하다. 또 세트는 18㎝·20㎝·24㎝ 양수와 24㎝ 전골냄비 등 주부들이 선호하는 크기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최근 실리트가 출시한 '레드매직plus'는 기존의 실라간 소재의 장점은 유지하되 손잡이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해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구성된 제품은 필요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락앤락은 5가지 디자인, 4가지 크기로 구성된 향균 도마를 선보였다.

소형부터 특대 사이즈까지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도록 홀터·벨리·앵글·래쉬·림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특히 홀터·벨리·앵글·래쉬 등 4종은 걸어서 보관할 수 있어 위생적인 건조가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전철로 떠나는 서해바다 일몰여행

마시란해변에서 바라 본 일몰 모습. /코레일공항철도 제공

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 28일까지

연말이 다가오면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몰여행이 인기이다.

전국 각지에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전철을 타고도 일몰여행을 떠날 수 있다. 바로 코레일공항철도의 서해바다열차가 그 주인공이다.

서해바다열차는 서해 무의도 입구 바닷가에 위치한 용유임시역까지 운행되는데 여기서는 무의도는 물론 소무의도와 실미도 등 섬여행과 마시란해변 등에서 용유해변의 자랑거리인 해넘이도 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명사십리로 불리는 3㎞의 긴 해변 끝 툭 튀어나온 지점에 위치한 조름섬 주변으로 떨어지는 일몰이 장관이다. 또 썰물 때 조름섬을 둘러보며 주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도 빼놓을 수 없다.

서해바다열차로 가장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은 거잠포와 마시란해변에서는 조개류와 해산물을 넣은 칼국수와 조개구이가 별미인데 찬바람을 맞으며 먹는 따뜻한 음식들은 여행을 더욱 맛있게 만든다.

이와 함께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하다. 보통 용유바다의 일몰은 오후 5시가 넘으면 시작되는데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서해바다열차의 용유임시역 출발 막차는 오후 7시25분이다. 여유롭게 일몰 감상을 끝내고 출발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코레일공항철도는 11월말까지 운행하기로 했던 서해바다열차를 오는 28일까지 주말마다 운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또 평일에 일몰여행을 가려면 인천공항역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 /황재용기자

추운 겨울 뭐하고 놀까?

리조트 등 놀거리 패키지 풍성

추운 겨울이지만 여행 등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놀거리가 주위에는 풍성하다. 즐겁고 신나는 겨울을 만나보자.

먼저 코레일관광개발이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해돋이 테마여행을 선보인다. 국내 해돋이 명소로 출발하는 기차여행부터 선상 해돋이와 함께 일본 큐슈의 대표적인 힐링코스까지 둘러보는 새해맞이여행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또 온천을 즐기고 대게 등 먹거리도 다양해 겨울 추억을 만들기 적당하다.

대명리조트는 겨울 패키지를 마련했다.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조식 패키지가 이어지고 대명리조트 단양 아쿠아월드 패키지와 대명리조트 변산 힐링 패키지도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스키장으로 잘 알려진 비발디파크와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스키장과 별도로 눈썰매장 전용 슬로프를 운영한다. 리조트에서의 힐링과 스릴 만점의 눈썰매로 짜릿한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김해 롯데워터파크는 첫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연 이벤트가 워터파크 곳곳에서 펼쳐지며 코믹 분장을 한 산타와 산타걸이 등장해 방문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여수·제주, 그리고 63스퀘어에서 '패밀Re 메모Re'와 '내 귀에 캔들'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밀Re 메모Re는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에게 어울리며 내 귀에 캔들은 연인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게다가 63 빌딩 레스토랑에서는 '크리스마스 프러포즈' 이벤트를 벌인다.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워킹 온 더 클라우드는 와인과 특별선물이 포함된 패키지를 마련했다. 58층의 슈치쿠에서는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로맨틱하게 장식된 룸에서 고품격 일식 코스를 즐기며 여자친구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펼칠 수 있다.

종합 레저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 투니 플레이존에서는 산타로 변신한 인기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퍼레이드'가 재미를 더한다. 또 '산타의 깜짝 선물 증정'과 '크리스마스 포토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으며 따뜻한 실내에서 테마 스파와 눈썰매 등을 만끽할 수도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연말 모임은 역시 뷔페!

특급호텔 프로모션 소개

연말 모임 장소로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뷔페가 인기다. 이에 특급호텔의 연말 뷔페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먼저 그랜드 힐튼 서울(사진)의 이브 와인 갈라 디너를 이용하면 새우와 꽃게 칵테일, 비트와 보드카로 절인 연어 등 고급요리를 맛보는 동시에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또 10인 이상의 단체고객에게는 칠레와인 1병, 15인 이상 모임에는 와인 2병이 제공되며 커플에게는 특별선물이 주어진다. 이용 후기를 남기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동남아 여행 항공권 등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는 12월 24일과 31일 이틀간 뷔페 스타일의 프리 시팅 디너와 아이스링크 위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아이스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조이풀 나이트(Joyful Night)' 이벤트가 열린다. 호텔 총주방장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포토존과 함께 다양한 경품이 증정되는 럭키 드로우도 이어진다.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의 아리아 뷔페에서는 연말을 맞아 각 코너마다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특별 저녁 메뉴가 마련된다. 콘래드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제스트는 다채로운 뷔페 메뉴와 함께 연말 모임 고객을 위해 10명마다 1명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인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카페 엘리제에서 크리스마스 특선 메뉴로 한 해 동안 가장 인기가 높았던 메뉴들을 엄선해 준비한다. 셰프가 직접 로스트 비프를 썰어주는 라이브 카빙 스테이션도 만날 수 있으며 테이블마다 칠레산 와인 1병이 선물로 주어진다.

도심 속 자연 공간 메이필드 호텔에서도 연말 모임 고객을 위한 특선 뷔페 '우리들의 따뜻한 식탁'이 펼쳐진다. /황재용기자

올 겨울엔 마법학교로 가볼까?

EBS와 최고의 스태프가 만든 교육마술 체험전 '이상한 마법학교'의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8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어린이 체험전 예매율 1위를 기록한 이상한 마법학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30~40대 부모에게도 호기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마술이라는 콘텐츠에 EBS의 다양한 교육 아이템이 더해진 오감 체험전이다.

또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해 총 3개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어린이에게는 졸업증서도 수여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후원으로 유니세프 활동 영상을 관람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구호물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어 나눔의 실천까지 가능하다.

체험 후기를 남기면 매주 7명을 선정해 마법 지팡이와 모자, 망토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문의: 1577-3363·www.icanmagic.com /황재용기자

세상 최고 '만원의 행복'

고3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 이벤트

1만원으로 세상 최고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고3 수험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Start Your New Self'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템플스테이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1만원만 지불하면 총 29곳의 사찰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와 해맞이 템플스테이,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단 예약과 입금을 완료한 후 현장에서 수험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GIVE ORIGINS

산타가 두고 간 특급 선물 이벤트

오리진스 행사 매장에서 홀리데이 선물 구매하는 분들을 위해 산타가 **오리진스 베스트셀러 정품 교환권**을 쏩니다.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산타의 선물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얼른 챙겨가세요.
메리 오리진스마스!

산타가 선물을 두고 간 매장 •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 12월 12일(금) ~ 14일(일) • 롯데백화점 부산점 / 애경백화점 분당점 : 12월 19일(금) ~ 21일(일)

*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해주세요.

정 총리, 평화전망대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강원도 철원 청성부대를 방문, 평화전망대에서 망원경을 이용해 전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朴 대통령 "FTA 추가 자유화로 사업 기회 확대해야"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2009년에 이은 두번째 특별정상회의이자 현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인 'CEO 서미트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이끌어왔다"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올 한해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아세안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양측 경제 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한·인도네시아 장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LIG손보 인수 승인해야

기자 수첩
김 형 석
<금융시장부 기자>

KB금융 사외이사 7명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 지주 본사에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일괄 사퇴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경재 의장, 고승의 이사의 사퇴에 이은 사외이사 전원의 결정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체제가 본궤도에 안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 'KB사태'의 책임을 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진다.

사외이사 사퇴가 그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주장한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위한 선결조건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퇴가 KB의 LIG손보 인수 승인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외이사는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사퇴를 이유로 LIG손보 인수 승인을 미루고 있지만 사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당국이 KB의 LIG손보 인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당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대신 윤종규 회장을 뽑은데 대한 '괘씸죄'라는 것.

KB와 달리 금융위는 정보유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농협에게는 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농협은 최근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주인 모르게 빠져나간 것을 비롯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담보설정이 미비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950억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 등 기관경고만 두 번을 받았다.

문제는 이번 인수가 지연되는 만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매각 당사자인 LIG손보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조직 구성, 협력업체와의 계약 만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국의 빠른 결정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靑 '문건 유출 배후'로 조응천 지목

내부 감찰 통해 '7인 그룹'이 주도 결론

청와대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의 작성과 유출 배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뒤 내부 감찰을 벌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7인 모임'이 이 문건을 작성, 유출까지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윤회 문건의 성격을 놓고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이 각각 "찌라시다",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진실 공방 제2라운드가 벌어진 형국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감찰 조사 결과, 오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의 작성, 유출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송파 세모녀법, 내년 7월부터 시행

●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김무성 "부동산 3법 등 민생 법안 통과 최선"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 모두를 통과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폭력·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 국방부는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여야, 대치정국 재연 조짐…'빅딜' 위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착수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를 주고받는 것을 골자로 한 '빅딜'을 이뤄냈지만 합의문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여야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처리 시한과 자원외교 국조 실시를 연계하면서 이를 부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의 활동 시한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처리 시한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를 먼저 실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발, 연말 국회가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현정기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어려워질 듯

내년부터 토지·상가 LTV 규제 도입, 예탁금 비과세도 폐지

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도한 수신은 억제되며, 조합별 규제 차익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권의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9월 기준 11.3%로 은행의 6.2%보다 2배나 빠르다.

다만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일원화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상가와 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동산대출 담보평가 적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9월 말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는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공신력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달 중에는 신협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모형을 개선하고 내년 중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이를 추진키로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종북 콘서트' 황선 관련 압수수색 경찰 수사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제2롯데 지하 잠실역 주차장도 물 새

아쿠아리움에 이어 제2롯데월드 지하에 있는 잠실역 공영주차장에서도 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 매체는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지하 공영주차장에 누수가 발생, 물이 새고 있다고 보도했다.

누수가 발생한 지점은 잠실역 10번 출구와 이어지는 잠실공영주차장의 출입구쪽 벽면이다.

누수 이유는 제2롯데월드 주차장과 잠실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벽면 뒤 흙이 머금고 있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통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경우를 대비해 따로 배수관을 설치해 두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는 실정이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측은 지난 11월 초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달 6일 롯데건설 측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요구했다.

/뉴시스

한편 11일 국민안전처는 제2롯데월드 수족관 누수 현상과 관련,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내년 4월부터 음식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전국 대상 금연구역 적용… 필요하면 흡연실 설치는 허용

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책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4월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게 된다. 담배로 구별되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황재용기자 hsoul38@

인화물질 터뜨린 고교생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11일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폭발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18·고교 3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 모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군은 10일 오후 8시 20분께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이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이 든 양은냄비를 가방에서 꺼내 번개탄과 함께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군은 다른 관객들에게 제지당하면서 냄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붙어 관객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투척 물질이 질산칼륨, 설탕, 물엿, 황 등을 섞어 만든 속칭 '로켓 캔디(일종의 고체연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오군은 범행 전날 이를 암시하는 글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오군은 지난해 여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가입해 준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경찰, 토막시신 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

경찰이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유력 용의자를 검거해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수사본부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 여성을 어느 정도 특정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며 "피해여성과 용의자 모두 중국동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의자의 경우 우리 국적도 취득했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어 이 또한 조사하고 있다"며 "용의자는 '박○' 등 가명을 여러개 사용하고 다녀 아직 실제 이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중간지점 작은 나무들과 잡초 덤불 사이에서 인체로 보이는 살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 4개를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비닐봉지 안 살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토막시신 피해자의 인체로 확인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함양 곶감 초매식 11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 곶감 경매장에서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함양 곶감 초매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metro HongKong

互聯網

中東李小龍幾亂真

模仿 阿富汗20歲男子沙庫里(圖)，自幼視已故武打巨星李小龍為偶

metro France

Dîner et champagne au Nou
Paris, c'est vraiment trop c

CRÉÉ : 09-12-2014 20:42

FÊTES DE FIN D'ANNÉE - Travelex, une société de change, a cor les plus grandes villes mondiales. Verdict : Paris est la métropol et loin devant New York. La meilleure destination pour faire la fêt l'Est.

새해 전야 식사… 파리 가장 비싸

국제 환전 서비스 업체 트레블엑스가 물가가 비싼 도시들을 대상으로 새해 전야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분석한 조사를 발표했다. 한 끼 식사비용과 샴페인 한 병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석한 본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파리에서 새해를 보내는 데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다. 파리에서 새해 전야를 보내기 위해서는 한 끼 식사 평균 80유로(약 10만원)와 샴페인 한 병에 220유로(약 30만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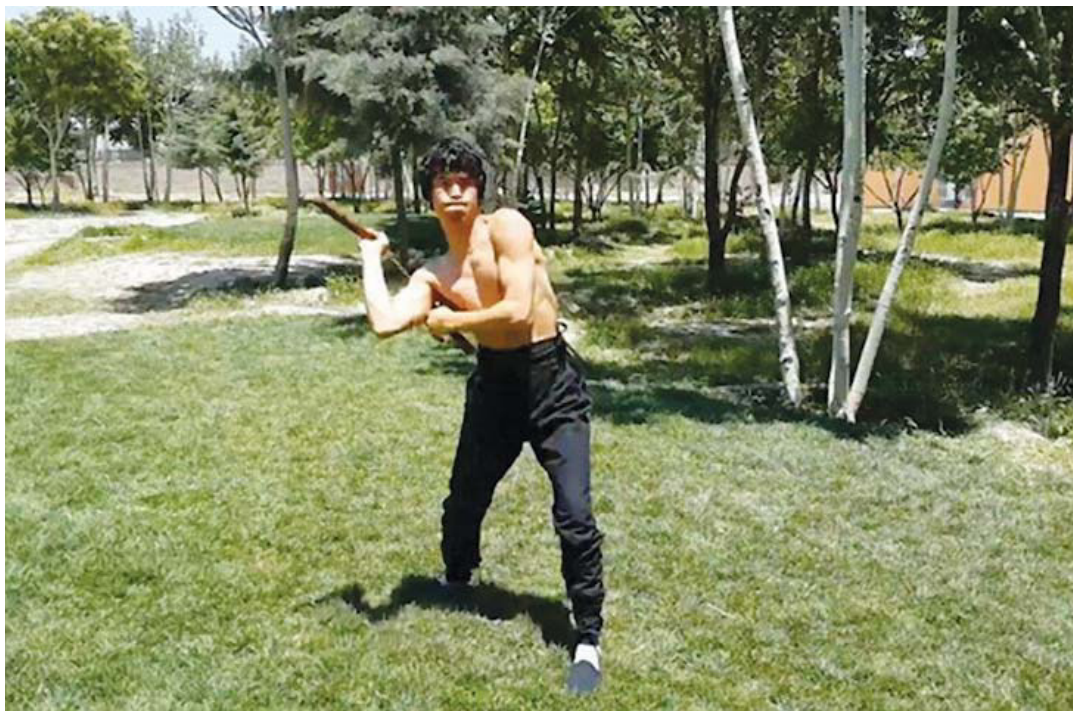
metro Brazil

da corrupção,
ıpa 69º lugar

국가 청렴도 69위… 꼴찌는 북한

브라질이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175개국 중 69위를 기록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 따르면 브라질이 175개국 중 69위를 차지해 지난해에 비해 3계단 상승했다. 한편 1위는 92점을 기록한 덴마크로 올해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로 꼽혔다. 반면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8점을 받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뵤~" 아프간 이소룡 인기 폭발

외모 닮은 데다 쌍절곤·날라차기 실력도 수준급… 가명은 '부스르 하자라'

전설의 액션 스타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인기는 여전하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같이 폐쇄적인 국가에도 팬이 있다.

최근 메트로 홍콩은 뉴욕데일리뉴스를 인용, 아프가니스탄의 아불파즐 압바스 샤쿠리(20)라는 청년이 이소룡을 닮은 데다 무술 동작도 생동감 있게 재현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 출신인 샤쿠리는 이소룡의 영어이름 브루스 리를 따서 '부스르 하자라'라는 가명도 만들었다. 샤쿠리는 자신이 '아프가니스탄 이소룡'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

어려서부터 샤쿠리에게 이소룡은 우상이었다. 그는 "이소룡에 관한 것이라면 책이나 영화 모두 빼놓지 않고 봤다. 외모에서부터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했다"며 "이소룡은 나의 영웅이자 유일한 꿈이다. 할 수 있는 한 우상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했다.

더 완벽한 모습의 이소룡이 되기 위해 그는 중국 무술도 배우고 있다. 최근에는 카불에서 열린 중국 무술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이소룡의 주특기인 쌍절곤 실력이 뛰어나다. 날라 차기, 내려 차기, 재주 넘기, 공중 목판 격파 실력도 모두 수준급이다.

또 얼마 전 그가 이소룡을 따라 찍은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말 닮았다" "이소룡이 부활했다" "중국에서 이소룡 리메이크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프간에는 샤쿠리 말고도 중국 무술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꽤 된다.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후 카불의 영화오락 산업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자 중국 무술과 관련된 비디오도 시장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영상을 본 후 중국 무술에 빠져 무술 동작을 흉내 낸 사진을 찍거나 도장을 찾아 무술을 배우고 있다. 현재 카불에서 중구 무술을 배우는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한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모스크바 광장에 순록 '루돌프'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노보푸쉬킨스키 광장에 '루돌프'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커다랗고 멋진 뿔을 자랑하는 순록 루돌프는 모스크바 근교에 살고 있다. 다가올 새해를 축하하고 시의 겨울 축제 '크리스마스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광장을 찾았다.

루돌프의 사육사 마투쉬카 카피톨리나는 "루돌프는 모스크바 근교의 성 니키타 무체니크 성당 내 보육원에서 지난해부터 아이들과 살고 있다"며 "아이들은 루돌프를 산타의 선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낸 덕분에 루돌프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루돌프가 모스크바 도심에서 시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카피톨리나는 "이곳에 온 시민은 루돌프에게 당근과 사과 등 먹이를 직접 줄 수도 있다"며 "루돌프가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보푸쉬킨스키 광장에는 '눈의 여왕' 조각상도 있다.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배우들은 조각상 옆에서 시민을 맞이한다.

한편 겨울 축제가 진행중인 모스크바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겨울 동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을 만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 이리나 수호티나는 "36개 지역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인물, 이색 건축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리아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 행보 빨라졌다

삼성과 빅딜·이라크 출장 이어 솔라원-큐셀 합병 "석유화학·태양광 등 미래 사업에 투자 집중"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현장 복귀 이후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며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5일 300시간 봉사활동 명령을 끝내자 마자 26일 삼성과의 석유화학 분야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어 28일 사장단 인사를 마친 뒤 이달 3일 출근을 재개해 이라크 출장을 떠났다. 지난 8일에는 한화 솔라원-큐셀 합병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핵심 사업을 털어내고 석유화학과 태양광, 첨단소재 등으로 사업구조 변경을 추진해온 한화는 지난달 삼성의 화학·방산 계열사들을 넘겨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인수 규모만 2조원에 달하는 이번 거래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방산사업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이라크 방문에서 사미 알 아라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을 만나 비스마야 신도시 내 학교, 병원, 관공서, 전력과 상하수도 등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시설 공사 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공사 수주가 실현될 경우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관련 총 공사금액은 기존 80억 달러에 20억 달러를 더해 100억 달러(약 11조원)로 늘어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현장을 방문, 한화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을 격려하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특히 한화는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의 합병을 통해 미래 전략사업으로 태양광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법인을 지휘하게 된 남성우 한화솔라원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합병을 통해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공고한 성장을 위한 퀀텀점프(대도약)를 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병법인은 셀 생산규모가 3.28GW(기가와트)에 이르는 세계 1위의 태양광 셀 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남 대표는 "앞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업체들은 지난 몇 년 간 과도한 가격경쟁 속에서 저마다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살아남은 회사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한화솔라원과 큐셀의 합병은 적시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전세계 태양광 수요는 지난해 40.3GW에서 올해 47.3GW, 내년 55.4GW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대표는 "한화큐셀과 솔라원을 합친 합병 법인을 지역별, 부문별 강점을 통합해 진정한 글로벌 업체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합병을 계기로 태양광 시장의 주요 현안인 반덤핑 규제에서도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 높은 다운스트림(발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 법인의 성장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자와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세계를 리드한 것처럼 이제는 태양광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을 지배할 때가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market index <11일>

구분	지수	변동
코스피	1916.59	(−28.97)
코스닥	537.21	(−4.75)
금리(국고채 3년)	2.13	(−0.05)
환율(원·달러)	1100.70	(−3.20)

'한국도자기 구경하세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홈·테이블데코페어 in 서울'에 참가한 한국도자기의 리빙브랜드 리한 전시장에 다양한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한국도자기 제공

삼성물산 취업 인기 1위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에서 삼성물산이 21개월째 1위 자리를 지켰다.

11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올해 12월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일명 '건설워커 랭킹')에서 삼성물산이 지난해 4월부터 21개월째 종합건설 부문 정상자리를 지켰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구산토건(전문건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 은민에스앤디(인테리어)가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 부문에서는 삼성물산에 이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부영, 금호건설, 한진중공업, 태영건설, KCC건설이 20위권에 들었다.

엔지니어링/감리/CM 부문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6개월째 1위에 올랐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포스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한미글로벌, 건원엔지니어링, 건화, 한국종합기술 순으로 '톱 10'에 들었다.

전문건설 부문에선 구산토건, 웅남, 현대스틸산업, 특수건설, 삼보이엔씨, 동아지질, 흥우산업, 동아에스텍, 삼호개발, 케이블텍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김두탁기자 kimdt@

IT비즈니스진흥協, 독거노인 찾아 봉사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회장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 사장. IPA)는 최근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말을 맞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복지관측에 쌀과 사과를 기부하고,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했다.

또 방문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식당도 청소했다.

이기영 상근부회장은 "IPA전 회원사를 대표해 사무국 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는 지난 1996년 국내 CALS/EC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 정보화 ▲기업간 협업 정보화 ▲IT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다수의 IT업체,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이 뜻을 모아 설립했다.

/김태균기자

코스피 외국인 매물 폭탄에 1920선 붕괴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물 폭탄에 두달만에 1920선이 무너졌다. 11일 코스피는 28.97포인트(1.49%) 내린 1916.59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부호 가문 지분가치, 1년새 16%↑

1위 범삼성가 28조원… 증가율 1위는 다음카카오 1714%

올해 30대 부호 가문 대주주 일가의 주식가치가 15조원 이상 증가한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011에서 1986으로 25포인트 낮아졌지만, 30대 가문 대주주 일가의 지분가치는 하루 평균 425억원씩 증가했다.

대주주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 총액은 범삼성가가 27조6000억원으로 1위였고, 범현대가가 17조4000억원으로 2위, 범LG가가 10조원으로 3위였다.

11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재계 대주주 일가의 주식자산을 조사한 결과, 상위 30대 부호가문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가 111조 7300억원(12월5일 종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30대 부호 가문의 구성원은 728명으로, 1인당 평균 153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지분가치는 지난해 말 96조2300억원에서 15조5000억원(16.1%)이 증가했다. 대주주 일가 수도 703명에서 728명으로 늘었다.

보유 지분가치가 가장 큰 곳은 범삼성가로, 이건희 회장과 친인척 27명의 보유 지분 평가액이 27조 6300억원에 달했다. 30대 부호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7%로, 지난해 말 22.3%보다 2.4%포인트가 높아졌다.

2위는 현대차·현대중공업·현대·현대백화점·KCC·한라·현대산업개발·현대해상·성우 등 9개 그룹이 속한 범 현대로, 17조35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8조 4000억원에 비해 1조원(5.6%) 감소했다.

범LG는 10조500억원으로 3위였고, 범 아모레(7조4400억원)가 SK(5조2800억원)를 꺾고 4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30대 부호 가문에 들기 위해서는 대주주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가 5500억원이 돼야 한다. 올해는 범동국제강이 말석을 차지했다.

/김태균기자 ksgit@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LIG손보 품으면 '1위 금융그룹' 재도약

KB금융, 사외이사 전원 사퇴로 인수 청신호… 금융위 24일 승인 가능성

K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이 전원 사퇴키로 함에따라 LIG손해보험 인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KB금융의 LIG손보 최종 인수가 연내 성사되면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게 되고 그룹내 은행 비중을 낮출 뿐만아니라 은행-보험-카드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KB 지배구조 개선의 걸림돌이던 사외이사진이 내년 3월 전원 사퇴키로 용단을 내림에 따라 오는 24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 10일 명동 국민은행 본점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지난주에 이어 자신들의 거취 문제를 재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B금융 사외이사들은 '경영 연속성'을 고려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재 남아있는 7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물러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내년 주총 때까지는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한 이유는 신임 사외이사를 선출하려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사외이사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LIG손보 인수에 청신호가 켜져 윤종규 회장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KB금융 사외이사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KB금융의 M&A(인수합병) 잔혹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 2006년 외환은행 인수 추진 때부터다. 당시 KB금융그룹은 인수 경쟁사인 하나금융을 제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KB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제시하며 계약을 성사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론스타의 먹튀 논란과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 등이 잇따르면서 2006년 말 KB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지난 2011년에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승부수를 띄웠으나 '메가뱅크' 논란 등 금융권 안팎의 반대여론에 밀려 M&A 카드를 접어야 했다.

2012년에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내걸고 ING생명 한국법인의 인수를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벽에 막혀 인수가 물건너가자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우리금융지주가 내놓은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입찰에서 농협금융그룹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이 이번에 LIG손보 인수에 성공한다면 '1위 금융그룹'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LIG손보는 손보업계 내 4위로 지난 10월말 기준 총 자산 22조2000억원, 원수보험료 7조3600억원이며 시장점유율은 14%에 육박한다.

KB금융이 LIG손보 인수 후 보험시장에서 공격 경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보험시장에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군부대 위문 방문 성금 전달 외환은행은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 소재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오른쪽)이 김영식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중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카드사,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 인하

카드사들이 올 연말부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현재 연간 금리가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음에도 이들 금리는 요지부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KB국민카드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부터 7.8~27.9%이던 현금서비스 연간 금리를 6.5~27.4%로 낮췄다.

카드론 연간 이자율은 6.9~26.5%에서 6.5~25.8%로 인하했고 내년 1월부터는 연체 이자율도 내리기로 했다.

우리카드는 이달 말부터 6.9~22.9% 적용되던 카드론의 금리를 연간 평균 0.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2분기 카드론의 평균 금리를 0.6% 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내년 초 평균 0.5%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카드론에 대한 연간금리가 카드사별로 0.3~0.7%p 가량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현대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6.5~27.5%의 연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삼성카드도 내년 초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카드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7.9~27.2%, 카드론은 7.9~23.9%다.

이밖에도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인 현금서비스 6.9~27.4%, 카드론 5.58~22.4%를 적용하는 NH농협카드도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경품 기부 통해 행운 나눠요"

우리은행, 소외층 돕는 이벤트 진행

우리은행은 11일 이벤트에 당첨된 경품을 불우이웃에게 기증하는 '행운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운나눔캠페인은 기존의 기부 방식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기부 방식으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이용시 자동으로 적립되는 응모권인 '머핀'을 이용해 응모할 수 있다.

즉 당첨된 경품을 사전에 지정된 불우이웃에게 응모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오는 28일까지 할머니와 단둘이 외딴 집에서 거주하는 슬기(가명)와 차가운 월셋방에서 일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승훈(가명)이에게 따뜻한 온수매트를 기증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 기부 대상자들에 관한 자세한 사연과 참여 방법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홍 우리은행 스마트채널전략부 부장은 "행복나눔 이벤트는 당첨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불우이웃들이 필요로 한 다양한 물품을 경품으로 준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보험이 밝고 희망찬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

삼성화재, 새 브랜드 '당신의 봄' 발표

삼성화재는 11일 보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회사 대표 브랜드 '당신의 봄'을 선보이고 브랜드 심볼과 슬로건을 발표했다.

'당신의 봄'은 보험이 고객과 세상의 위험을 살펴보고 고객이 따뜻한 '봄날'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심볼은 따뜻한 봄날을 연상시키는 꽃잎을 형상화하고, 새 브랜드 슬로건 '당신에게 좋은 보험'은 보험이 밝고 희망찬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았다.

회사는 새 브랜드를 통해 장기·자동차·일반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종합보험회사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객 안내장·홈페이지 등 회사의 모든 분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김규형 삼성화재 홍보팀 상무는 "우리가 먼저 '좋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다"며 "좋은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희망찬 '당신의 봄'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형석기자 khs84041@

SCREEN

HUGH JACKMAN · RUSSELL CROWE · ANNE HATHAWAY · AMANDA SEYFRIED · EDDIE REDMAYNE · WITH HELENA BONHAM CARTER · AND SACHA BARON COHEN

SCREEN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레미제라블

t.cast | E channel · SCREEN · DRAMAcube · FashionN · CINEf · FOX · FOXlife · FX

12월 24일 [수] 밤 11시 TV최초

한화생명, CEO아카데미 전국으로 확대 한화생명은 고려대학교와 연계해 진행 중인 '한화생명 CEO아카데미'의 1기 과정을 성료하고 해당 강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참여 고객의 참석률이 95% 이상 이를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지방권 고객들의 참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생명 제공

금투협 차기 회장 5파전

막판까지 경쟁 치열… 자산운용사 '캐스팅보트'

금융투자협회의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5파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막판까지 판세를 점치기 힘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오는 16일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박종수 협회장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금투협회장 후보로 총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유정준 전 한양증권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회장의 5파전으로 압축됐다.

금투협회장은 회원사들의 자율투표로 결정된다. '관'의 입김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력 후보를 점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박종수 현 협회장이 당선된 지난 2012년 당시 선거도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는 선거 초기 관료 출신 후보인 최경수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할 것으로 점쳤으나 막판까지 결선투표를 시행한 결과 박 현 협회장이 당선됐다.

당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막판 표심이 박 현 협회장 쪽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의 2파전으로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황영기 전 회장은 KB금융지주는 물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 삼성증권 사장 등 증권사와 금융지주 수장을 두루 거쳤다.

황 전 회장은 이런 업력을 토대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기범 전 사장은 박 현 협회장이 헝가리 대우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한 경력이 있으며 경영능력이 뛰어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 업권 간 이해 관계를 잘 조율할 인물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가장 최근 출사표를 던진 황성호 전 사장은 씨티은행·다이너스카드 등 외국계 금융사에서도 오랜 경력을 쌓은 데다 대형사 출신이란 이점이 있다.

최방길 전 부회장은 운용업계 출신의 첫 후보란 의의가 있으며 유정준 전 사장은 중소형사 출신으로서 차별성을 띈다.

결국 차기 금투협회장 자리는 이번에도 투표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금투협의 정회원은 증권사 62곳, 자산운용사 86곳, 신탁사 11곳, 선물사 7곳 등 총 166곳으로 구성된다.

회장 투표는 정회원 1곳당 1표씩 투표한 결과를 60% 반영하고, 협회비 분담률에 따라 0.4%~2%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나머지 40%에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투협은 내년 1월 말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관행적 검사 축소… 시장 소통 확대"

진웅섭 금감원장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 제재도 최대한 금융사가 조치하도록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21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 프레임도 규제중심(Rule-base)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진취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창조·기술금융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중국 교통은행이 지난달부터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것과 관련, 시스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난치성질환 학습 보조기구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11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박춘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희귀난치성질환 학생과 가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생보재단은 38명의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1억원 상당의 학습용 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앞서 생보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255명의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에게 8억원 규모의 안구마우스·페이지터너·노트북 등을 지원했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 중인 학생들이 질환으로 인해 학습을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학습용 보조기기를 지원해 학생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재단은 2007년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18개 생보사들이 공동으로 출연,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11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식에서 유석쟁(오른쪽) 생보재단 전무가 문진경 환우에게 학습용보조기기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신한은행 최병화 부행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개인수상한 센터장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주최 '제19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대통령 표창과 개인부문 표창을 수상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中企금융지원 대통령 표창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9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지원포상'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금융인들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니즈에 맞춰 세분화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적극 추진했다"며 "특히 기술금융을 통한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투·융자 복합 금융 상품 출시 등으로 중소기업과 상생을 통한 창조금융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은행은 그간 ▲중기금융지원 6조5000억원 ▲기술금융TCB기반대출 1조3000억원 ▲우수기술 보유 창업자 연대보증면제 최초 도입 ▲중소기업과 동반자관계 구축위한 성과공유형 사모전환사채인수 출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노력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지원 Desk' 운영 등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신한은행이 펼쳐온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창업-성장-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중소기업이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한은행이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후지필름 'X100T', 파나소닉코리아 '루믹스 LX 100', 캐논 '파워샷 G7 X' (왼쪽부터)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고성능'으로 승부

하반기 하이엔드급 제품 출시 잇따라

올 하반기에도 '똑딱이 카메라'가 높은 사양과 성능을 갖추고 시장공략에 나섰다.

최근 스마트폰의 화질이 좋아지면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크게 축소됐지만, 하이엔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18일 시장조사업체 GfK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콤팩트 카메라 시장에서 하이엔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4%, 지난해 28%에서 올해 42%(2014년 8월 누적 기준)까지 올랐다.

이에 카메라 업체들은 미러리스, DSLR 등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보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기능의 카메라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는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라인업 최상위 모델인 'X100T'를 지난달 출시했다. 이 제품은 후지필름이 자체 개발한 APS-C 크기의 X-Trans CMOS II 센서와 고속 EXR 프로세서 II를 탑재해 고화질 이미지와 빠른 반응속도를 갖췄다. 또 세계 최초로 전자식 레인지 파인더를 채용해 광학 뷰파인더 사용 시에도 보다 정밀한 수동 초점 조절이 가능하다.

새롭게 개발된 필름시뮬레이션 모드 '클래식 크롬'이 탑재돼 깊이 있는 색을 표현하며 1/32000초 고속 정음 전자셔터, 인터벌 타이머 촬영, 리모트컨트롤 기능 등도 지원한다.

지난달 말 파나소닉코리아도 기존 디지털카메라에 탑재된 1/1.7 센서보다 5.4배 큰 마이크로 포서즈 센서를 세계 최초로 탑재한 하이엔드 카메라 '루믹스 LX1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ISO 200에서 ISO 25600까지 지원해 높은 ISO 감도에서도 선명한 고화질 이미지를 구현한다. 1/4000초(기계식)와 1/16000초(전자식)의 빠른 셔터 스피드를 갖춰 최대해상도를 유지한 상태로도 초당 6.5장 고속 연사 촬영이 가능하다. 풀 HD의 해상도보다 4배 더 높은 4K(3840×2160)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캐논은 올 하반기 총 4종의 콤팩트 카메라를 선보였다. 이 중 최상위 하이엔드 카메라인 '파워샷 G7 X'는 일반적인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보다 약 2.8배 가량 큰 1.0형 이미지센서가 탑재돼 노이즈 감소와 고화질의 표현이 가능하다. 디직 6 영상처리엔진을 채용해 이미지 처리 속도도 크게 향상시켰으며 고감도에서의 노이즈를 대폭 줄여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최대 31개의 AF 포인트를 지원해 화면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피사체의 초점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맞출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SKT, 휴대용 공기측정기 출시 SK텔레콤은 손쉽게 공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휴대용 공기측정기 '에어큐브'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SKT 제공

1% 저금리 시대 대안은 '오피스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2.0%로 인하된 이후, 은행 예금금리가 연 1% 대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 이상)을 감안하면 가만히 앉아서 자산을 까먹는 시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에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 즉 오피스텔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연 5%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소형오피스텔은 장기적으로 몸 값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남보다 한 발 앞선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요구된다.

전국과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6% 중반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평균 수익률을 한참 밑도는 단지들이 많다. 11일 부동산114는 월세 시세 조사를 통해 연 5%를 초과하는 수도권 주요 오피스텔 단지를 선별했다.

투자자는 장기 저리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시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유자금이 1억원 이상이라면 레버리지(대출)를 통해 2억원 수준의 오피스텔까지 투자 물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대출이자(연 3% 수준)를 감수하더라도 임대수익률(연 5% 이상)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크게 월세와 투자금으로 구성된다. 투자금 1억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2만원(42만 원*12개월=506만원)이라면 연간 5% 수준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공실 위험이라든지 수선비, 세금, 중개보수 등 별도의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 수익률 5~6% 이상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수익률이 최소한 연 4~5%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세계 정상 잇따라 대우조선해양 방문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 앙골라 소난골 사의 프란치스코 레모스 회장이 연달아 회사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방문했고, 지난 11월에는 영국 에드워드 왕자가 방문하는 등 한국을 찾는 세계 각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찾고 있다.

8일 옥포조선소를 찾은 러시아 극동지방 개발 책임자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생산 현장 곳곳을 살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국영기업 3곳과 극동 지방 내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1일 옥포 조선소를 방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인도네시아 잠수함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오른쪽)과 소난골 사의 프란치스코 레모스 회장이 유조선 건조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재호 사장과 접견했다. 2012년 대우조선해양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사로부터 FLNG를 수주해 건조 중이다.

/김민준기자 mjkim@

홍보맨이 펴낸 '30센티 마음여행'

"더할 나위 없었다. Yes!"

기자에서 홍보맨이 된 최필규(사진) 씨가 직장인으로서 애환, 직원에게 보낸 응원과 힐링의 메시지를 담은 '30센티 마음여행'(출판사 :FKI미디어)을 펴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미생'을 모르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직장인은 물론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시청하고 있다.

이 책은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완생(完生)의 길을 찾아보자고 권유한다. 경제전문 기자로 주로 기업을 취재하던 입장에서, 기업의 홍보맨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저자의 이력이야말로 '관계'와 '소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 책은 그런 순간을 성찰하며 쓴 글 모음집이다. 작은 관점의 변화로 행복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이 소소한 이야기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오늘 우리 미생들에게 비타민처럼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김태균기자 ksgit@

새판 짠 이통3사, 내년 경쟁구도 촉각

SK텔레콤 '대대적 변화'…KT·LG유플러스 '안정'에 초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젠 내년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구상에 들어설 방침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수장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임원인사를 통해 조직 탈바꿈에 나섰다.

우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SK그룹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 사장의 빈 자리를 장동현 SK플래닛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채운다.

사실 올 한해는 SK텔레콤에 악재가 잇따랐다. ▲통신장애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45일간의 영업정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 분위기 등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 때문에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장 신임 사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장 신임 사장은 30대에 임원으로 승진한 데 이어 51세의 나이에 그룹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 CEO에 비해 젊음을 무기로 하는 한편, 조직 내 체제정비를 통해 SK텔레콤만의 강점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이동통신(MNO)총괄 산하에 마케팅부문과 기업솔루션부문, 네트워크(NW)부문을 편제해 각 영역간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플랫폼 총괄을 신설하고 사업개발부문을 글로벌사업개발부문으로 재편해 플랫폼과 글로벌 사업에 SK텔레콤과 SK플래닛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플랫폼 총괄은 장 사장이 겸직한다.

이 밖에 사업총괄을 비롯한 주요 부문장·투자회사 대표의 교체를 단행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예년에 비해 소규모 임원인사로 안정을 찾기 위해 주력했다. 황창규 회장이 올해 1월 취임한 후 KT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다.

연말 임원인사서는 전반적으로 변화보단 안정을 택하며 소규모 인사에 그친 모양새다. KT는 이번 연말 임원인사에서 승진은 부사장 3명, 전무 4명, 상무 17명에 그쳤다.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한동훈 경영지원부문 전무, 구현모 비서실장 전무, 최일성 KT에스테이트 대표(전무급)가 부사장으로 승진돼 검증된 실무형 임원을 중심으로 중용했다.

KT는 신규 선임 임원에 대해 '성과'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그룹 시너지'를 실천하는 인물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부문장급 인사는 지난 1년 간의 경영 성과와 2015년도 성과 창출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현 보직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행됐다. 고객과 사업 분야는 유임하고 경영기획부문과 경영지원부문 등 지원 분야에 대해서만 부문장을 교체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번 임원 승진인사 대상자가 전무 2명, 상무 3명 등 5명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과 영업, 연구개발(R&D)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英 대학에 무선랜 솔루션 공급

삼성전자가 영국 대학에 '스마트 무선랜 솔루션'을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영국에서 디지털 분야 교육으로 유명한 버밍엄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무선랜 AP(Access Point)와 무선랜 제어기(WLAN Controller)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버밍엄 메트로폴리탄대학은 버밍엄 지역에 총 8개 캠퍼스가 있으며, 약 2만7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무선랜 솔루션'을 통해 캠퍼스간 이동을 하더라도 별도의 인증과 접속 절차 없이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의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무선랜 솔루션'은 삼성전자가 그 동안 축적해 온 이동통신기술의 노하우를 접목해 학교나 기업 환경에서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최상의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무선랜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이라며 "차별화된 품질과 사용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선랜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무역센터 윈터 페스티벌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광장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세계인이 함께하는 러브스토리'를 주제로 한 '무역센터 윈터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소득자 48%, 年수입 1천만원 이하

개인소득자 중 48%는 1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11일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서 2010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 3122만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개인소득자 3122만명 중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사람이 48.4%(1509만5402명)였다. 1000만원 미만 소득자 중 3분의 2에 이르는 987만9083명은 소득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만원 미만도 330만2921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도 포함됐다.

1000만~4000만원 소득자는 37.4%, 4000만~1억원 소득자는 12.4%, 1억원 이상 소득자는 1.8%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자 전체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었다. 그러나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1074만원으로 평균 소득의 52.5%에 불과해 소득의 상위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

전체 소득자 중 취업자수는 2383만명이다. 소득자 수보다 취업자 수가 적은 이유는 일은 하지 않지만 재산소득만으로 돈을 벌거나 평소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의 평균소득은 2640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의 60.4% 수준인 1594만원이었다.

/김태균기자 ksgit@

조현아 등 3남매, 보유주식 1280억

2008년 보다 18배↑

'땅콩 리턴' 사건으로 주목받는 조현아(사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3세 삼남매가 보유한 상장 계열사의 주식가치가 최근 5년간 18배로 불어났다.

재벌닷컴은 11일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인 조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삼남매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치는 전날 기준 1286억원으로 5년전인 2008년 72억원의 17.9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는 ▲2008년 72억원 ▲2009년 104억원 ▲2010년 132억원 ▲2011년 94억원 ▲2012년 117억원 ▲2013년 748억원 ▲2014년 128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삼남매가 각자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가치는 5년 전 24억원씩에서 현재 428억~429억원씩으로 균등하다.

이들 삼남매가 보유한 대한항공의 주식 수는 1997~2007년 10년간 회사의 주식 배당을 받아 소폭 늘어나다, 2012년 조양호 회장의 증여로 급증했다.

삼남매는 올해 보유하던 대한항공 주식을 주당 3만7800원에 매수청구를 신청해 매각했다. 또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만여주씩을 배정받았다.

한진칼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대한항공 주주로부터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한진칼 신주를 발행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현재 조현아 부사장과 조현태 부사장은 한진칼의 지분을 2.48%씩 보유하고 있으며 조현민 전무는 2.47%를 갖고 있다.

/김태균기자

복원 논란을 넘긴 '백석동천', 그러나…

권기봉의 **도시산책** <106>

한양도성 북쪽 너머에 있는 부암동은 서울에서도 자연 환경이 빼어나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 중에서도 부암동 주택가 뒤쪽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백석동천' 혹은 '백사실'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다. 지금도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도룡뇽과 버들치, 가재 등이 서식할 정도다.

그렇다고 자연만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계곡 사이의 '白石洞天'(백석동천)과 '月巖'(월암) 등의 바위 각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L'자형 사랑채와 '一'자형 안채가 있던 한옥 터와 육각 정자의 주초석, 돌계단, 인공 연못 등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별서(別墅)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별서는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에 살림집과 정자, 대(臺)를 함께 구성하는 일종의 교외 별장 같은 공간이다.

다만 이 경치 좋은 계곡의 별서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다. '오성과 한음' 이야기의 오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백사 이항복 선생이 살아 백사실로 불린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1970년대 들어 서울시가 발간한 <동명연혁고(洞名沿革攷)>의 "1830년대에 중건되었다"는 기록, 일제강점기였던 1935년에 찍은 사진 뿐이었다.

그러다 2102년경 이 별장의 주인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옛 문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사의 <완당전집 권9>에 "옛 사람이 살던 백석정(白石亭)을 예전에 사들였다"는 내용과 "나의 북서(北墅), 즉 북쪽에 있는 별장에 백석정 옛터가 있다"는 구절을 발견했다.

사단이 벌어진 것은 그때였다. 종로구청이 정자를 복원하고 그 앞에 있는 연못에 물을 가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문화재 복원은 늘 옳은 것일까? 사실 축대만 남아 있을 뿐 고증할 만한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괜히 엉뚱한 모습으로 '상상 속의 복원'을 하면 문화재 복원의 원래 의미만 퇴색시킬 뿐이다.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 등이 힘을 보태면서 종로구청의 계획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복원 논란은 어떻게 넘겼지만 부족한 시민의식이 백사동천을 멍들게 하고 있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10년간 각방 써 황혼이혼 팔자인가 손재주 있으니 기술쪽 직업 갖도록

Q **달별사랑 여자 49년 11월 21일양력 자시**

화목치 못한 우리 부부는 10년 전부터 각방 쓰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대화가 없고 무관심합니다. 이유는 제가 바람을 폈다고 남편이 생각한 것입니다. 10년 전 제가 건강식품 다단계를 할 때 어느 날 제가 아침 운동나간 사이 어느 남자가 두 번 전화가 왔었는데 남편이 받으니까 아무소리 없이 끊었다고 하면서, 어느 날은 전화가 오면 제가 방문 닫고 들어가 남편을 피해서 전화 받았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제가 노후에 황혼이혼 팔자인가요.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한심한 인생살이입니다.

A 귀하보다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의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나쁘게만 생각을 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이지요.

을목(乙木) 사주인 귀하의 남편은 경금(庚金)인데 화극금(火克金)을 당하여 괴로운 실정에 남편 궁에 형살(刑殺:형벌을 받듯이 흉함)을 받아 있는데 공망(空亡:빌공, 망할망)까지 있으니 같이 살아도 떨어져 있느니만 못하고 원진살(원수처럼 지내지만 막상 헤어지지도 못하고 지내는 흉함)운이라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지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전생의 업보라고 하여 내 사주가 그러한 남편을 만나서 살게끔 된 것이니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자식 낳고 길러 결혼 시키고 남편과 같이 살아 왔다면 할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여성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남녀동등의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여자가 업무상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공연히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60대 이상의 부부 중에서 말 안하고 사는 사람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남이나 남편이 대신 해 줄 수 없는 것이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취업을 하거나 일을 안 하건 간에 84세까지는 활발히 음질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도 손만 대면 살아나게 하는 재주'가 있으며 꼼꼼한 손재주가 있으니 기능계통으로 직업을 가져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악마의 유혹도 있게 되니 투자하라는 감언이 따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항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1	6	8
		2	7					
				6				
4			6	7			1	
9				4				6
	6			8	5			3
				9				
					7	3		
8	1	9			4		7	

5		7		3				
3			8		6	5	2	
			1					8
	2	6						1
		4				2		
1						4	3	
6					8			
	4	9	7		5			3
				4		9		2

스도쿠 정답

7	3	4	9	5	2	1	6	8
6	8	2	7	3	1	5	9	4
5	9	1	4	6	8	2	3	7
4	5	3	6	7	9	8	1	2
9	2	8	1	4	3	7	5	6
1	6	7	2	8	5	9	4	3
3	7	5	8	9	6	4	2	1
2	4	6	5	1	7	3	8	9
8	1	9	3	2	4	6	7	5

5	8	7	4	3	2	1	9	6
3	9	1	8	7	6	5	2	4
4	6	2	1	5	9	3	7	8
7	2	6	3	9	4	8	5	1
9	3	4	5	8	1	2	6	7
1	5	8	2	6	7	4	3	9
6	1	3	9	2	8	7	4	5
2	4	9	7	1	5	6	8	3
8	7	5	6	4	3	9	1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12월 12일 (음 10월 2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지난 상처는 빨리 잊어라. **60년생** 캄캄한 마음에 빛이 든 격이다. **72년생** 꾸며낸 모습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라. **84년생** 궁하면 통한다.

49년생 진심은 어디든 통한다. **61년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놓아주어라. **73년생** 영광과 비애가 교차한다. **85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명심~.

50년생 결단 빠를수록 이득~. **62년생** 경쟁자에 한수 배운다. **74년생** 같은 실수 반복 않도록 조심할 것. **86년생** 한번 눈 맞추고 나면 일은 훨씬 수월해진다.

51년생 술자리 약속은 공염불 된다. **63년생** 삶에 약이 될 좋은 읽는다. **75년생** 쓴소리 듣는 것을 즐겨보자. **87년생** 배우고 싶은 선배모델 만난다.

52년생 좋은 일에 애로가 생김~. **64년생** 인생역전의 기회가 온다. **76년생** 상대가 기세등등할 땐 움직이지 마라. **88년생** 상사에 신뢰 쌓는데 신경 써라.

53년생 특권 버리면 대접받는다. **65년생** 자영업자는 수확이 풍성한 하루~. **77년생** 청마가 초원을 달리는 격이다. **89년생** 목표가 다른 사람과 동행은 삼가라.

42년생 아랫사람은 미워도 품어라. **54년생** 아프리카에 난로를 판 격이다. **66년생** 속타는 일이 해결되어 야호~. **78년생** 간절한 마음은 통하는 법이다.

43년생 한 발 모자라는 격이다. **55년생** 불난 벗에 기름 끼얹지 말라. **67년생** 상대가 원치 않은 선물은 독이다. **7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존재감 보여주라.

44년생 최고 찬사가 아깝지 않구나. **56년생** 입맛대로 고를 일은 없다. **68년생** 거짓말로 공든 탑 무너뜨리지 마라. **80년생** 노력하면 꿈이 달려온다.

45년생 경사에 시름 날린다. **57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해 얼쑤~. **69년생** 염원을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81년생** 벗이 빈손으로 오더라도 실망 마라.

46년생 꾸미지 말고 진정한 나를 찾아라. **58년생** 배우자 뜻 인정하면 애로가 없다. **70년생** 필요할 땐 겨울잠 자라. **82년생** 사막에 새 싹이 돋은 격이다.

47년생 지나간 세월 잡을 수 없다. **59년생** 실리 잃어도 명예는 지켜라. **71년생** 골치 아픈 일은 해결된다. **83년생** 일이 잘 풀릴 때 가속도 내어보자.